

# 임실, 국내 대표 브랜드 '우뚛'

### 군, '2017 고객감동 브랜드지수' 농촌도시 브랜드 부문 1위 차지

임실군이 자랑하는 '열매의 고장 임실'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우뚛 섰다.

20일 임실군은 서울그랜트호텔에서 열린 '2017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시상식에서 농촌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당당히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고객브랜드지수 평가에서 임실군은 '열매의 고장'이라는 대표 브랜드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한 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평가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결과다.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품질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복숭아와 배, 고추 등과 같은 농산물을 잘 활용해 '열매=임실'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잘 살려내고, 이를 통해 임실N양념사업과 임실N과수사업 등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과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임실N양념사업과 임실N과수융복합사업 등 2차 가공 산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차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1차 생산과 3차 유통사업, 체험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

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수상은 임실고추와 같은 유명한 지역의 특산물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사업화하고, 가공과 체험을 있는 6차산업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특색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열매의 고장 임실의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시설부터 가공·유통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임실군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3만 임실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적성·유등·풍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국가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군이 추진하고 있는 11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성공적 완성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소재지 정비가 완료된 구림면의 모습.

## 순창 읍면 소재지 정비 완성 '성큼 다가오다'

### 군, 2019년 공모사업에 적성·유등·풍산 정비 추진

순창군이 적성·유등·풍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국가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군이 추진하고 있는 11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성공적 완성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2019년도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적성·유등·풍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최근 관계공무원들이 유등·풍산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실감각 있는 사업내용으로

공모선정 가능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업이 선정되면 순창군 11개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돼 읍면 중심지 거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도로정비 등 인프라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정주생활 기반 확충, 경관개선,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크다.

따라서 추진에 대한 주민 여론도 높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이미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사업 추진을 완료했다. 또 쌍치, 구림, 금과, 동계, 팔덕면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입예산만 480억원 규모로 막대한 사업이다. 인계면은 60억 규모로 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순창읍 일품공원, 복흥면 복지회관 및 체육관 건립, 옥천로 정비 등 도로 환경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읍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높다는 지역여론이 일고 있다. 군은 적성·유등·풍산의 소재지 정비 사업도 각 60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개선,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큰 인기'

### 임실군, 정보취약계층 아동 대상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군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가정지역 이동센터와 연계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오는 9월까지 약 25회에 걸쳐 진

행되며 프로그램 활용 도서를 대상으로 어린이 모두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은 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두가 찾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실군립도서관은 종이접기 자격증반, 역사과학교실, 자서전쓰기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640-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소방서, 선거 대비 특별조사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오는 25일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안전한 선거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하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관내 개표소 2개소와 사전투표소 34개소, 투표소 51개소 등 8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투·개표소 설치 건물의 소화기 적정 비치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투표관련 시설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행태 조사, 관계자 화재 예방 초기대응요령 및 응급처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비상구 폐쇄 및 계단·통로 물건 적치 단속, 피난계획 확인 등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육정호 상수원지킴이' 교육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 역할을 특별히 하고 있는 '육정호 상수원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섬진강범 문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임실군은 지난 19일 상수원 지킴이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 강실리기 추진단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박상준 섬진강범 관리단 차장을 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교통과에서는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완료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왔던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및 도동동 대교길 주변 일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도심지 일대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

남원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동충동 36-7번지 일대에 사업비 16억4천만 원을 투입해 주차면수 61면, 도동동 대교길 617-7번지 일대에 3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22면 규모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정동 59-2번지 일대에 71면 규모로 조성중인 예가담길 옆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개방하여 인근 주민 및 상가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노

암동 2개소에 88면, 함교동에 42면 규모로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2018년도에는 38억원을 들여 남원시 내 3개소에 88면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교통과에서는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순창군이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순창군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1%에 불과하다.

군은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와 마을 방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 단감, 뽕, 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골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작년 순창군에서는 병충해, 냉해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단동하우스 3900만원, 벼 1억2700만원, 복분자 85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아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금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경찰,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0일 관내 식당에서 순창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운전자회 발전방안에 대한 경찰협조사항 등 교통협력단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범운전자회는 이정길 회장을 비롯해 48명의 회원은 순창지역 주요 크고 작은 행사 군민의 날, 장류축제, 벚꽃축제 등으로 인해 물러드는 차량들의 정체를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교통안전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